문화재청→국가유산청…유산 체계 재정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통합적 관리 시스템

'종교유산협력관' 신설 소통 강조
불교계 종단 축하 메시지 잇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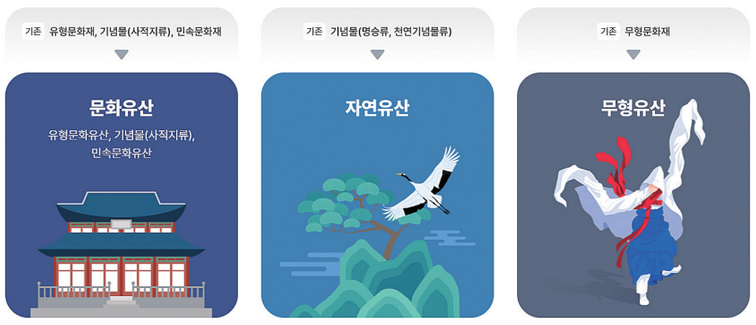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문화재청이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그동안 널리 쓰인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기본으로 한 체계가 도입됐다. 대한민국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관리해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기존 조직을 전면 정비했다. 국보, 보물 등 유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중점을 뒀던 과거의 체계를 벗어나 앞으로는 유산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으로 재편, 통합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 국외유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유산정책국'을 둬 1관 4국 24과 1단 5팀 형태로 운영한다.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직책·조직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유산정책국 아래 '종교유산협력관' 자리가 신설됐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각 종교와 관련한 유산을 다룰 때 소통하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로, 전문임기제 형태로 1명씩 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의 유산별 분류. 문화재청 누리집 갈무리

조계종은 대변인 기획실장 우봉 스님 명의로 국가유산청 출범을 축하하는 논평을 내고 무궁한 발전을 기대했다. 조계종은 "국가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창의성의 원천이며, 미래세대에 가치 있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국가유산청 출범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유형·무형·자연유산과 이들이 어우러진 복합유산을 함께 전승하고 보존해 나가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유산청의 개청과 국가유산 체제의 정립을 통해 전통문화의 본질적인 가치를 온 국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조계종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우리 문화를 꽃피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논평을 내고 "이번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불교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불교·문화 정책 확장, 국가유산 가치의 전승 및 활용·진흥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 "태고종은 수많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켜낸 불교문화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의 보고(寶庫)인 불교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온전하게 미래세대에 보존·전승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서 "태고종은 전통사찰 및 유·무형 불교문화유산 등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민에게 불교문화와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도 국가유산청 개청을 천태종 250만 종도와 함께 축하하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계가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계승 발전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전환되는 '국가유산' 체계에 발맞춰 불자들과 국민들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목우암 삼존상' 등 '성보 유산' 보물된다

영산회상도 · 지장시왕도 등 5건
5월 10일 각각 보물 지정예고
"화승 예술성 · 인쇄술 중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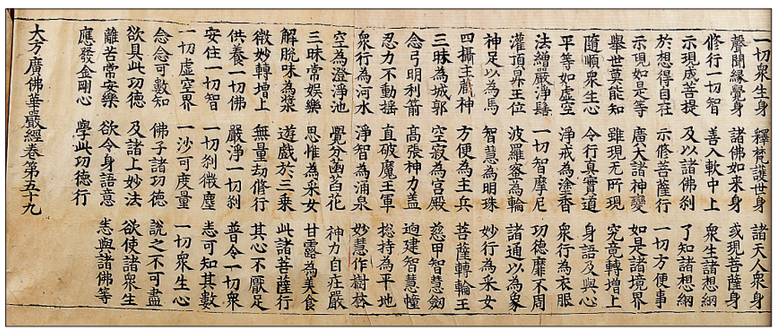
조선시대 불상과 불화, 고려시대 경전 등 문화재 5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10일 임진왜란 직후 조성된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 등 불교 문화재 5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본존불 바닥면에 있는 조성 관련 묵서를 통해 1614년(광해군 6)이라는 제작 연대, 수조각승 각심(覺心) 등의 제작자,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됐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으로 17세기 조각사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5월 10일 보물로 지정예고된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본존불의 규모가 186㎝에 이르는 대형 불상으로 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 넘치는 조형성을 담고 있다.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갖추고 있다. 또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각심, 응원(應元), 인균(印均) 같은 조각승들의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충분하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와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화기(畵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64년(영조 40)이라는 제작 연대와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다. 영산회상도는 수화승으로 참여한 두훈(斗訓)의 완성된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지장시왕도는 전수(典秀)가 유일하게 수화승으로 참여한 작품으로, 전반적 양식은 1744년에 제작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섬세하고 개성 있는 자세와 표정을 짓고 있는 시왕상, 채운(彩雲, 여러 가지 빛깔의 구름)을 적극 응용한 구도와 인물의 배치법 등에서 작자의 개성과 예술성이 두드러진다.

한 사찰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불사에 참여했던 화승들이 분업과 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학술적 의미가 충분하다.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는 중국 당(唐)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화엄경을 한역한 80권본 중 권59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 차이가 있다. 중국 송(宋)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조부 '조경(趙敬)'의 피휘(避諱) '경(敬)'과 겸피자(兼避字) '경(竟)'의 획이 빠져 있는 점 등을 통해 11세기에 판각한 이후 팔공산 부인사에 소장돼 있다가 1232년(고종 19) 몽골 침략 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을 찍은 인출본임을 알 수 있다.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는 총 7권의 〈보운경〉 중 권6~7과 〈불설아유월치차경〉 권 상·중·하의 인쇄본을 합친 것이다. 표지 및 인출 상태 등을 통해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경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표지와 인출 종이의 보존 상태가 좋아 조선 초기 인출한 대장경의 기준작으로 의미가 있으며 고려시대 판각 인쇄술을 비롯해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는 게 국가유산청 설명이다.

임은호 기자

북유럽 스웨덴 닿은 한국 전통 불교문화

주스웨덴 한국문화원서 불교문화 사진전 개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이 북유럽 스웨덴까지 닿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5월 7일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로비에서 '한국전통불교문화 사진전' 개막식을 열었다. 사진전은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해 한국 전통 불교문화 전람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진전은 28일까지 진행된다.〈사진〉

사진전에는 '길 위의 수행자'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3가지 주제로, 5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사진전은 스웨덴에서 '한국 전통 불교문화'를 주제로 열린 첫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주제 '길 위의 수행자'에는 새벽 도량석 모습을 시작으로, 묵묵히 참나를 찾아가는 길 위에 선 수행자들, 1700년 한국불교 맥을 이어가는 수행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다. 2주제 '템플스테이'는 사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지구촌 참가자들 모습과 아름다운 산사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3주제인 '사찰음식'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발우공양의 상차림,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과 전통 공양간이 담겼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사무국장 대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진전에서 만나게 될 한국의 사찰 모습은 과거 천년을 이어온 역사적 공간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간"이라며 "자연과 어우러진 사찰의 아름다움과 그 곳에서 수행하며 1700년 불교전통의 맥을 잇는 스님들의 모습, 사찰에서 일상을 보내는 '템플스테이'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소 낯설지만 벅찬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남은당 현봉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에 대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의 영결식 및 다비식을 불기2568년 5월 5일(음력3월27일) 송광사에서 총림장으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찾아 주신 원로 대덕스님들을 비롯해 제방의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좌들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지면으로 감사인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8년 5월 5일(음력 3월 27일)

총림문도 : 수좌 현묵 유나 범종 선원장 영선 주지 무자

도제(상좌) : 연체 연수 연각 상우 무안 무영 무량 삼도 일웅 일문 일주 자홍 혜장 지우 마천

손 상 좌 : 자륜 도우 도성 도하 능원

방장 남은당 현봉대종사 49재 일정

초재	5월 7일	(음3.29)	오전 10시	화요일
2 재	5월 14일	(음 4.7)	오전 10시	화요일
3 재	5월 21일	(음4.14)	오전 10시	화요일
4 재	5월 28일	(음4.21)	오전 10시	화요일
5 재	6월 4일	(음4.28)	오전 10시	화요일
6 재	6월 11일	(음 5.6)	오전 10시	화요일
7 재	6월 18일	(음5.13)	오전 10시	화요일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문의 061-755-0107